

제 73 호

제 2 부활 주일
(사백 주일)

1974. 4. 21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신
 인쇄인 함 승 권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목 상】

의심을 버리고 믿으시오

한 상 갑



언젠가 신뢰도(信賴度)를 알아보는 놀이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자를 대충 정리하고나서, 눈을 가린 사람이 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의 손을 잡고 실내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을 사리면서 조심스럽게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놀이를 지도해주신 분이 평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두 사람이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생활에, 서로가 믿고 사는 일이 얼마나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린이에게 자기의 진로를 맡기고 길을 걷는 장님의 모습에서, 의사를 찾아 자기의 신병치료를 맡기는 환자에게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토마의 불신앙을 듣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하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그러나 이처럼 철두철미한 실증론적(實證論的) 고백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현대인들은 토마의 입장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여행을 끝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찾아보아도 하느님은 없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미국 최초의 우주인은 「우주에는 은통 하느님으로 꼭 차 있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이리도 전혀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일찍이 세네카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가령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더라도 밤낮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오늘도 믿지 않고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토마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시오. 또 당신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시오.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시오. 당신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당신은 당신의 말씀처럼 참으로 부활하신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전주 해성 중·고 교사〉

* 이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갓난아이 같이 너희도 순수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써 너희는 자라나 구원을 얻게 되리라. 알렐루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사도행전 5:12-16, 성서 P. 274)

주님은 믿는 사람들의 수효는 점점 더 많아졌다.

□**증계송** ◎주님께 감사하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이여 나를 믿고 떠밀어 쓰러뜨리려 했어도 주님은 나를 도우셨도다. 주님은 나의 힘, 내 노래 이시니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의인의 장막 안에 승리의 저 고함소리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제2독서** (묵시록 1:9-11a, 12-13, 17-19, 성서 P. 558)

나는 죽었다가 이제 영원히 살아 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토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었으나 나를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는 참 행복하다. ◎

□**복음** (요한 20:19-31, 성서 P. 259)

팔일 후에 예수께서 오셨다.

□신자들의 기도

1. 우리에게 평화를 빌어주시는 주여, 참으로 당신의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당신을 알게 하소서. ◎주여...

2. 토마를 깨우쳐주신 주여, 토마처럼 당신을 보아야 믿으리라 하는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않고도 믿을수 있는 참 행복을 알게 하소서. ◎

3. 고통받는 이의 위로자이신 주여, 계속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고심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

+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는 주여, 당신의 평화로 우리의 나날이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주...◎아멘.

(3) 성찬의 전례

성찬식

봉헌

□**영성체송** 네 손으로 이 못 자국을 짚어보아,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알렐루야.

* 순정이 산책 *



차가
완전히
정차하면
내릴시다.



성 수(聖水)

박 진량 신부

성당에 처음 오신 분에게 생수하고 이상한(?) 느낌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성수이다. 성당 입구에 담아 놓은 물을 손으로 적어서 성호를 긋는 것이 어쩐지 개운치가 않은 모양이다.

사실, 예비신자들 한테서 이 성수가 무엇이나고 질문을 받은 적이 많았다. 또 얼마 전만 해도, 주일날에는 으레 공식미사 전에 성수예절을 했었다. 지금도 장례식 때, 건물이나 물건을 축성(축복)할때는 이 성수를 사용하고 있다.

도대체, 그 유래와 뜻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오늘날 성당에서 성수를 사용하는 뜻은 「세례 때에 사용하는 성세수(聖洗水)를 상기시키는 데」 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대한 신앙으로 믿음이아 물과 성신으로 새로 태어난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성수를 사용한다.

그러나, 성수가 생긴 기원을 보면, 외교인들이 여러가지 장소에 뿌릴 때 흔히 사용하던 정화수(淨化水)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공식적인 기도로 물을 축복하여 마귀를 쫓아내거나 정화(淨化)시키는 뜻으로 자주 사용해 왔다. 미사경본에 있는 성수 축성 기도문을 보면 그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리고 물에다가 소금을 섞는것은 열왕기 후서 2장 2~22절에 나오는 「엘리세오」의 행동을 모방한 것 같다.

이렇게 물에다가 소금을 섞는 풍습은 적어도 6세기 이전부터 도입된 것이라고 하며, 그 물을 집이나 교회건물과 밭등, 언제나 어떤 장소에 뿌리곤 했다.

주일날 행하는 성수예절의 기원은 초기에는 수도원의 여러곳을 정화하기 위하여 성수를 뿌리는 데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보편화하다가 마침내는 성세성사를 기념하는 예절로 교회 안에 보존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외에도 신자생활에 성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장례식 때, 망자의 시체에 뿌리는 경우이다. 향을 피우고, 성수를 뿌리면서 「망자가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永生)으로 부활」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풍습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세례를 상기시키며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성수의 사용에 대하여 미신스럽게 여겨지도 말 것이며, 또한 미신스럽게 사용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가톨릭 센타 판장>



고독의 Image

김 안토니오(경수)

사람은 누구나 더 선량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고독한 환경을 그리워한다.

물론, 고독한 경지로 들어가는 양태(樣態)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모방하여 놀기도 하고, 청춘기에 이른 사람들은 그윽한 산이나 적막한 해변을 찾아 고독을 마음껏 누리하고자 한다.

또,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실업가가 복잡한 자기직장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 기차칸에서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외로히 차창과 더불어 지낼수 있었던 것을 흠족히 여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은 참된 고독을 찾는법이 아니며 우리를 고상한 목적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참신한 정신을 떠나 공허한 고독. 이는 내용도 목적도 없이 무의미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로맨틱한 고독도 틀린 것이다.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유없이 현실에서 도피시켜 이상향에 공중누각을 짓게 할 따름으로, 이는 결국 가치도 영속성도 없는, 일순간의 쾌락(?)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릇된 고독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고독은 절망적인 고독이다. 이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속에 잠겨, 자기와 자기마음을 켜어 뜯으며, 또 이에서 불진전한 쾌감을 느끼며, 참된 위로와 구원을 배척하는 변태적 고독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이체(F. W. Nietzsche)는 일찍이 이런말을 했다. 「아직도 천주를 생의 친구로, 반려(伴侶)로 하고 있는 자는 구극의 고독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또한, 우리의 내적 생활을 지배하시는 천주님을 내쫓고자 하였고, 뿐 아니라 천주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려 하였던, 이 병적(病的) 철학자도 결국 자기가 찾던 고독에 패하고 말았다.

사람이 일신의 파멸을 면하려면 그 고통을 천주님께 고백해야 한다.

혼자서 절망중에 고민하지 말고, 모든 고통을 그리고 죄라든가 망명도 생각을 씻어버리고 공상이나 잠ฝัน을 털어버리면, 그정도에 따라 영혼은 깨끗해지고 내적 안정이 찾아온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고독한 가운데서 천주를 발견하고 이를 누릴 수 없다.

내적침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같은 노력을 해야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적 생활의 문이며 또 영혼의 힘이고, 미(美)인 참된 고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수 있을 것이다. (전주 서학동 본당 상관공소)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동
(전화 ④4577)

* 교향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③ 6094

들어보세요 이 노래를……

세상에 외치고 싶어

팝송으로엮은 성가

노래 : 한상일
성바오로 여자 수도회 합창단
가격 900원

취급처 : 성 바오로 서원 전화 7398

양 지 쪽



노는 땅

김길수

「노는 땅을 없애자」란 캠페인이 며칠 전에 있었다. 37초마다 1명의 인구가 태어나는 한국의 인구폭발 문제에 당연이 있음직한 운동이다. 인구 밀도가 날로 격증하여 식량 부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자원 부족의 현 실정에 한치의 땅이라도 이용하여 생산 소득에 기여 함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햇빛은 산에 백년대계의 식수를 하고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꾸어 씨앗을 뿌려 거둬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노는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둘 뿐만 아니라 불모지로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만 해도 부동산 투기 사업으로 공한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은가?

노는 땅의 문제는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는 사람들」 자체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실업자군(郡)이 그 대표적 예이다. 물론 실업자 문제는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요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자기 능력의 10분의 1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유네스코 사회 담당 조사계의 발표에서 현대인은 자기 능력 전례의 5%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인간의 두뇌는 라마르크라는 생물학자가 언급한 사용불사용설(使用不使用說)의 영향을 받아 퇴화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기도 한다. 노력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들끓는 사회는 비생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가 자행되기 마련이다. 약탈과 노략질, 부정과 요행수의 생활태도에선 복된 사회가 이룩되지 않는다. 가정에 먹고 노는사람이 많으면 그 가정은 평생을 두고 가난하다. 게으른 사람들의 사회집단속엔 안일과 퇴폐풍조만이 도사린다. 피와 땀과 눈물의 노력이 없는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창조와 건설은 성실한 노력의 역사를 전제로한다. 정신의 공터를 기름진 사색과 진실의 정신으로 배꾸어야 한다. 시간의 여분을 살려 믿음의 땅을 사고 사랑과 희망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마. 7:15) 인생의 과일을 만들어야 한다. 성서에서 탈렌뎀(재능)의 비유(루19.11)는 우리가 「노는 일꾼」 「노는신자」 이있는 지 반성토록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성심여교 근무)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간사 안지은, 전화 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사회
-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 영어교실 매주 월~목 7시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말씀의광장 : 예수 부활과 교회 쇠신 (4월22일월요일 밤8시)

* 이주간의 성경 *

- 22(월) 독서(사도행전 4:23-31, 성서 P. 273)
- 복음(요한 3:1-8, 성서 P. 207)
- 23(화) 성 제오르시오 주교
- 독서(사도행전 4:32-37, 성서 P. 273)
- 복음(요한 3:7-15, 성서 P. 207)
- 24(수) 성 피렐리스 사제 순교
- 독서(사도행전 5:17-26, 성서 P. 275)

- 복음(요한 3:16-21, 성서 P. 208)
- 25(목) 성 마르코 복음 사가 축일
- 독서(베드로전 5:5b-14,)
- 복음(마르코 16:15-20, 성서 P. 120)
- 26(금) 독서(사도행전 5:34-42, 성서 P. 276)
- 복음(요한 6:1-15, 성서 P. 215)
- 27(토) 독서(사도행전 6:1-7, 성서 P. 276)
- 복음(요한 6:16-21, 성서 P. 216)

요심이 (40) 김병오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성심 바오로 서원

장의차 · 꽃상여 ·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 교우들에게 특별영가 봉사 ◎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 (전화 3 6691 교회 85 번)

☆집질도장청부 ☆ 고급실크벽지☆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 사

- 동문 베거리 (풍남동 1가 17)
- 전화 35986
- 임 도민고(정원)

선물용 케이크 빵, 파자, 찹쌀떡 준비!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찾 집 *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35011 찹쌀 35013
- 김 원 준 (야고버)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1. 제6회 말씀의 광장 (4월 22일 : 가톨릭센터)

◎ 주제 : 예수 부활과 교회 세신

◎ 연사 : 은명기 목사 (전주 남문 교회)

지정환 신부 (신용조합 지도, 임실 정환 치즈공장 대표)

2. 성년 피정 (그리스도 공동체 북상회) 개최

제1차 (5. 1~4) : 고창, 김제, 부안, 수류, 신태인, 정읍

제2차 (5. 13~16) : 둔물동, 월명동, 중동, 함열, 화산

제3차 (5. 27~30) : 고산, 금산, 동이리, 삼례, 여산, 창인동, 회동

제4차 (6. 10~13) : 남원, 무주, 순창, 장계, 전주 시내

◎ 장소 - 전주 가톨릭센터 회비 3,000원

3. L. M. 표미씨울 회합 (오늘 전동에서 1시30분)

서학동, 복자, 전동 P. 간부님들의 전원 참석 요망합니다.

4. 본당 신부님들과 사도회장님들의 회합 (4월23일 오후 8시)

중앙성당에서 찾아오니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4지구장 김영일 신부.

5. 전주 지구 중·고등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오늘 오후 4시, 노충동 천주교회)

※ 각 본당 친구 회장단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6. 4지구 사회분과 회의 소집 일시 : 4월 25일 오후 8시 장소 : 덕진성당 각 사회부장. 차장 참석요

[소]

[시]

(중앙)

전화 2651 / 3874

주임 신부 안복진 / 보좌 신부 박창복 / 사도 회장 이복석

1. 학생교리 : 오늘 오전 9시~9시30분까지 강당에서 있음. (중·고등학생 전원)
2.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3. 전자울건 특별헌금 : 감사드립니다.
- 5만원 : 익명 2만5천원 : 오재희 5천원 : 최순자
4. 축하합니다 :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단
성경부 : (정숙아, 김성수, 김영태)
독서부 : (조복우, 최관석, 박노준)
합창부 : (이성룡, 이미숙, 이강오)
5. 신용조합 소식 : 조합원은 4월말일까지 통장지참 대조하십시오.
□전자 울건 특별헌금 172,0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60,271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무금 완납 요망 (교구와 본당 운영에 정성을 다 합시다.)
2. L. M. 표미씨울 회합 (오늘 오후 1시반 : 전동성당) P. 간부님들은 전원 참석 바랍니다.
3. 영세자 : 지난 12월에 45명이 영세 (유아세례도포함)
4. 불 판공성사 (486명 성사불) 아직 못보신 교형 자매는 사무실을 통해 숙히 보십시오.
5. 부활 말갈 (950개 축성)
6. 예비자 교리 (당분간 휴강)
□지난주일 (부활주일) 미사참례자수 10시 : 474명
7시 : 124명. 계 598명
지난주 성미 3말 6되. 누계 270말
지난 주일 봉헌금 25,535원. 감사합니다.

(노충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 사도 회장 조해형

1.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3. 본당 신부님 퇴원 (16일 :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 노충성당 신축에 협조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5천원 : 전동익명. 3천원 : 박수산나(정려). 천5백원 중앙성당 이아가다. 천원 : 남노충동 박모니까 (귀남). 8백원 : 신교리 공소 율리아(순동)
□지난주 신축기금 11,300원 누계 1,173,522원
지난주 신축성미 1말5되. 누계 161말 5되
74년 3월말 세입 세출 보고
세입 1,203,349원 세출 1,162,145원. 잔액 41,204원
본당 재정 운영에 더욱 협조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전(부활성야). 대축일 봉헌금 39,700원
감사합니다.

★ 축결혼 (4월21일 12시)
신랑 : 박중철(요아김) 신부 : 이윤례(데레사)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병일 / 사도 회장 이거영

1. 예비자 교리 (오늘 공식 미사후 : 많은 참석 요망)
2. 11반 김요한씨 사망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3. 아동교리 (토요일 오후 6시)
부모님들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년행사 (중앙성당 : 말씀의 전례)
금요일 오후 8시 : 일반신자들의 많은 참석 바람.
5. 부활절 고백성사 결과 (500여명)
6. 신용조합 월례회 (24(수) : 오후 8시)
7. 신용조합 이사회 (22(월) : 오후 8시)
□지난 주일(부활) 봉헌금 25,277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 사도 회장 김종환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전 조합원 참석 바람 (부권 1매씩 줌) 불참하시는 대부 받을 때 1할 공제됩니다.
2. 학생회 임시총회 (오늘 공식 미사후)
진급회의이니 학생 전원 참석 요망.
3. 본당 후보성인 베드루 가나시오 칠레 (4월27일)
많은 교우들의 미사참석을 바랍니다.
4. 사도회 임원 임명
교문 : 이범상(바비아노)
전교부장 : 전명숙 교육부장 : 김용환
선교차장 : 유정순. 부녀부 차장 : 최보남
5. 미사시간 변경 (일 : 오전 10시. 오후 4시. 8시)
월. 수. 금 : 오전 6시. 화. 목. 토 : 오후 8시
□애령회 성미(지난주 2되. 누계 1말 1되)
헌금 200원씩 : (덕진동 연화.정연희)감사합니다.
누계 4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21,242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 사도 회장 송재진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저녁 미사후)
 2. L. M. 표미씨울 월례회 (오후 1시30분)
 3. 주일학교 일일교장 (이종욱 선생님)
 4. 미사시간 변경
주일 : 첫미사(오전 5시반) 둘째미사(오전 9시)
공식미사(오전 10시) 저녁미사(오후 7시반)
평일 : 월, 화, 수, 목(오전 5시반). 수, 토(오후 7시반)
 5. 신용조합 소식 (4월 임시총회시에 임원 선출)
이사장 : 한수익. 부이사장 : 장준수. 감사 : 이병식. 이동주.
이사 : 범창규. 이현재. 김대원. 장금매. 이경순. 이귀남. 이길용.
- ★ 축결혼 (5월 1일(수) 오전 11시반)
신랑 : 유안셀모(윤운) 신부 : 이로서리아(에네)
□애령회 소식 (헌금에 많은 협조 바람)
전월잔액 26,351+수입 8,500=34,851원
지출 : 대세자 1명 3,000+적금 7,620=10,620원
3월말 잔액 24,231원
지난 주일 봉헌금 81,590원. 감사합니다.